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 오늘 본문 24장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먼저는 누가 이 일의 주체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말씀은 사탄이 주체가 되어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왜 벌을 받아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하나님께 범죄 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십니다. 그 하나의 방편으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말씀과 종합하여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구 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바로가 모세와 대립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고 하여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정당화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인구 조사는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인구 조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센서스(Census)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할 때에 "이스라엘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보고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를 계수함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자신들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

다. 즉 다윗 왕이 블레셋을 비롯한 모압이나 암몬 더 나아가 아람의 군대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는 인구조사는 단순히 자신들의 군대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의 계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불신앙의 행위로 표현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 23장에서 다윗의 용사들을 계수하고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였는데 만일 순수한 의미에서 군대를 정비하는 것이라면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다윗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밖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들을 정복하였고 안으로는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자신을 반역한 압살롬 등 내부에 있던 위협들도 다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22장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다윗의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요압이 보기에도 찬성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다윗의 인구 조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땅을 9개월 20일 동안 다니며 이스라엘 80만, 유다 50만 총 130만이라는 숫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인구조사가 다윗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교만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교만이 들어올 때 그 교만은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아담을 범죄하게 만든 죄의 원형인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겸손한 마음은 던져버리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모든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힘을 통해 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도 나의 뜻을 이루는 조력자로 여기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행 중 다행으로 다윗은 자신의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 일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울도 교만한 죄를 범하였고 다윗도 교만한 죄를 범하였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회개를 하였는가에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진심을 다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여쭤보는 베드로에게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뻔뻔한 모습을 보일 때면 용서하는 마음은 둘째치고 용서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 마음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용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단순히 심적으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롬8:32).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에 대한 징계는 내리실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

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죄인 된 것과 우리의 범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